

2018 사제동행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민들레 같은 우리 선생님 | 김하음(원동초등학교 3)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2018 겨울 제15호



살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제15호



Contents

2018 겨울 제15호

표지이야기 함께라서 즐거움	04	어떤 학예회, 어떤 축제가 기억나시나요?
	10	우리 학년 수다의 힘
	14	석남초 구내식당

학교 돋보기	18	학교는 '저'하기 나름이에요
	22	캐리커처 봉사활동을 통한 나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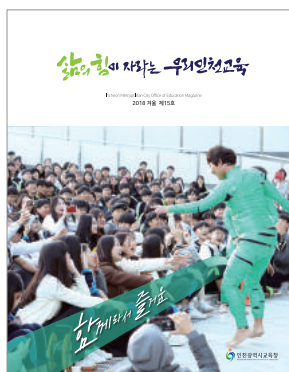
캠페인	24	인천 초등교원 수 감축에 대한 Fact-Check
	26	교원 성과상여금 어디까지 아시나요?
	28	교육에 정답이 있을까?
	30	우리 모두가 교육감입니다

공감	38	와글와글 우리 반
----	----	-----------

학생·학부모 리포트	40	“선배님들 파이팅”
	41	할말이 많아서 하겠다
	42	미래 교육을 만나다
	44	양사갯벌탐험대, 출동~!

정보	46	무상교복 사용 설명서
	47	만나라! 건강한 공기!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기획 및 편집 어석원, 강경은
사 진 이주한, 서주희, 이예슬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 화 032-420-8125
편집디자인·인쇄 중앙프린텍(T. 032-883-8195)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 2018-0111



Cover Story

함께라서 즐거움. 축제라서 흥겨움.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해주려
선생님은 온몸에 청테이프를 두르고
돌리로 변신했습니다.

사진 이예슬 교육홍보팀



<<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독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인천교육소식"(gongbo@ice.go.kr)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인천교육소식(http://www.ice.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기사,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어떤 학예회, 어떤 축제가 기억나시나요?

feat. 제목학교

교실에서 반별로 우리끼리 즐거웠던 석천초 반별 학예회,
큰 무대와 많은 관객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선 상아초 학년별 학예회,
하루 종일 다양한 발표와 전시로 우리를 표현한 청람중 축제까지

사진/이예슬



석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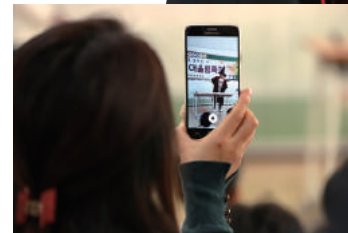
Incheon Seokchun Elementary School



익스펙토 페트로눔



인사 한 번 하고 가실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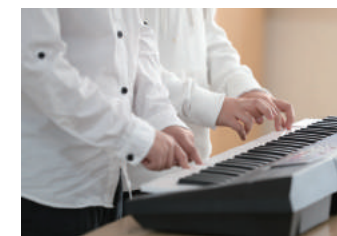
이것은 얼짱각



어머! 어머님이 누구시니



오~ 조금 신기한데



삼아초

Incheon Sang-A Elementary School



팬찬아 자연스러워

무념무상

엄마 나 잘하죠

자석에 끌리듯



우리 아이는 어디있더라

제가 번개걸 할래요.





청어람중
Incheon Cheongram Middle School





우리 학년 수다의 힘

글/김이슬 인동초등학교 교사
사진/이예슬



‘정수기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사람들이 정수기 근처에서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우물가 효과’라고도 하고 ‘워터쿨러 효과’라고도 한다. 옛날 빨래터에서 만나 빨래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었다는 이야기와 어딘지 비슷한 구석이 있다. 지금은 미국의 IT 회사인 ‘T’사에서도 직원들끼리 얼굴을 마주칠 수 있도록 사무실의 구조를 광장형 통로를 거쳐야만 자기 책상으로 갈 수 있도록 바꾸었다 하기도 하고, 재택근무보다 조직의 소통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에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학교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무실이면 좋겠지만 어딘지 교무실은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다. 교무실까지는 아니어도 초등학교에서는 동학년 연수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이라 쓰고 컴퓨터라 읽는다-은 각 교실에 있기에 스스로 그 교실을 걸어 나오지 않으면 서로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만남’과 ‘관계’가 꽃 피울 때 정수기 효과 뿐 아니라 동료 간 ‘수다’를 통해 ‘공감’과 ‘치유’가 일어나고 ‘민주적 학년 운영’을 꽃피우는 동학년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꿈같은 이야기인가? 그 언저리에 위치한 교사 공동체를 우리 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가 찾아와서 우리 학년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물으면 사실 대단한 것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막상 학년이 운영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평범해서 지나칠 만한 일상들이다. 혁신학교가 혁신이 아닌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이라는 자조처럼 우리 학년 역시 수다 속에 웃음이 좀 많을 뿐 딱히 자랑거리는 없다. 굳이 다른 점을 찾아내려 안테나를 세워본다면 회의할 때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고, 나의 의견도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있다는 정도. 학년 부장이 혼자 결정해도 아무도 불평 못 할 일을 한 명 한 명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묻는 정도. 다음 주 과학 실험을 어떻게 할 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떡볶이랑 튀김은 어디가 맛있지?” 같이 고민하는 정도. 성교육 수업을 하고 나서 반에서 일어났던 작은 일들로 집에서 이불킥하다가 다음날 이야기 나누며 “나도 그랬어.” “나도, 나도” 하는 정도. 주간학습안내 수정이 잦아 여러 번 쿨메신저 보내도 서로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주는 정도. 그냥 그 정도 일 뿐이다.

다른 학년도 모두 각 학년 연수실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수다와 잡담이 때로는 누군가의 흥을 보거나 기운을 쏙 빼놓는 시간 죽이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럼 수다가 정수기 효과를 넘어 공감과 치유로 이어지는 차이는 무엇일까? 그 특이점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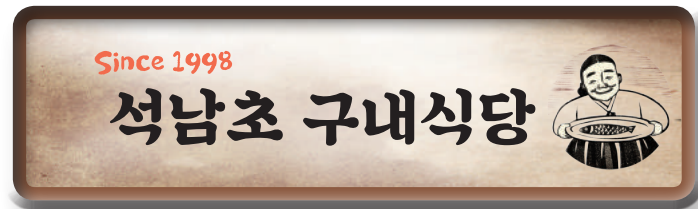
“수다가 공감과 치유로 이어지는 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데 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며 모든 순간순간 내면의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서로에 대해 안쓰럽게 여기고, 그렇게 소진된 마음을 채우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는 즐거울 때 보다 힘들 때 더 빛난다.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 역시 내 교실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다른 반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서성이며 함께 마음을 보탬다.

그러다 보니 교실이라는 밀실을 나와 협의실이라는 광장에서의 만남은 두셋만 모여도 웃었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마주하는 이 사람들과의 시간을 귀한 만남으로 여겼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니 자신을 더욱 잘 돌보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과 호기심으로 질문하고 답하니 전문적 학습공동체 타이틀 없이도 두셋만 모여도 배움이 일어나고 학년이 모두 모였을 때 존중과 배려를 공기처럼 느끼니 그 공기가 교실로 갈 수밖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손맛



글/어석원 사진/이예슬



왼쪽부터 신옥희, 김영금, 김현심, 윤순심, 고영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집에서 남편은 2~3시간 밖에 못 보지만
여기선 8시간을 함께 있어요.”
“방학 때나 주말엔 같이 여행도 다녀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6.3년,¹⁾ 석남초 조리종사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9년이다. 20여 년 한결같이 한 직장, 한 사무실에서 손발을 맞춘 분들을 만났다.

직장이 중요하지만, 직장을 사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에 출근은 꼭 해야 하지만 출근길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다. 석남초 조리종사원분들은 달랐다. 날마다 재미난다는 그들은 방학도 주말도 필요 없단다. 힘들고 거친 일이지만 그들이 즐거울 수 있는 건 오랜 시간 함께한 서로가 있기 때문이었다.

조리종사원의 하루는 검수로 시작한다. 아침에 배달된 음식 재료의 상태와 양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조리는 메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밥, 반찬, 튀김이나 부침, 채소 등으로 나뉜다. 매일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한다. 조리가 끝나면 배식 시간이다.

“엄마보다 맛있다고 할 때, 고맙다고 인사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직접 배식을 하니 아이들과 소통이 잘되어요.”
“교실에서 배식할 때도 있었는데 식당에서 배식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먹는 걸 보니까요.”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5인 이상 부분)」



“우리 학교엔 왕자님 공주님이 많아요.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왕자님, 공주님처럼
멋있다고 하거든요.”

매일 식사시간마다 만나는 아이들이기에 무엇을 잘 먹고 안 먹는지 아는 건 당연하다. 편식이 심한 아이들은 특히 더 잘 기억한다.

손수 조리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았기에 청결에 더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석남초 조리종사원분들은 식판 닦는 기계에 그냥 넣어도 되지만 매일 애벌 설거지를 한다.

“아이들 먹는 거라 깨끗하라고, 꼭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요.”

이렇게 설거지하는 식판은 800여 개다. 대규모 식당이기에 조리도구의 크기도 예사롭지 않다. 눈치와 협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도움이 필요한 동료가 보이면 말하기도 전에 알아채고 달려 간다.

마음의 안정이 행복의 시작

지난 세월이 짧지 않기에 힘든 일이 없던 건 아니다. 가장 슬픈 일은 역시 함께 일한 동료들 떠나보낸 때다. 작년에 동료 한 명이 학교를 떠났다. 정년(만 60세)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데 나이가 걸려서 학교를 떠났단 아쉬움이 크다. 내년엔 다른 두 분이 정년으로 또 한 번 이별이다. 가장 기억나는 일로 조리 중 사고로 다리를 다친 동료 이야기를 꺼낸다. 결국 다리를 절게 된 동료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 친구가 다쳤어도 돌보지를 못하고 배식을 했던 기억이 슬펐어요.”

“아이들 배식을 해야 하니까, 배식 중에 갈 수 없어서 그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조리종사원의 신분이 불안정한 때가 있었다. 지금은 모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불안함이 없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왔다.

“해고란 단어 한마디만 안 들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할 때는 크고 작은 사고가 더 일어나요. 지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니 사고도 줄었어요.”

근무 시간이나 급여 등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노동 조건이다.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더 중요한 조건은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가”가 아닐까? 18년째 매일 커피를 타신다는 막내부터 내년이 오는 게 아쉽다는 퇴직을 앞둔 큰 언니까지 밝은 표정이 이어진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손맛의 비결은 행복 에너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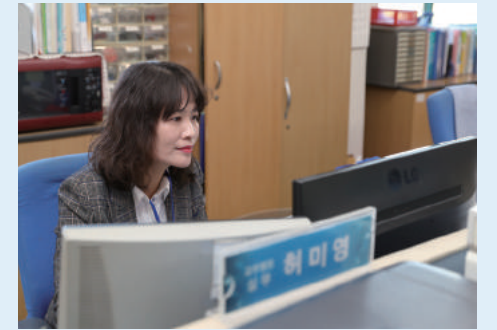


최고 밥상



인천광역시교육청
인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교무실무원 허미영

“저 학교 다녀요.” 여기 학생과 교사 말고 학교 다니는(?) 이들이 또 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를 제외하고 다양한 직업이 학교 속에 있다는 사실. 학교 속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 학교 속의 진짜 학교 이야기를 들어 보자. 그 중, 인천청량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허미영 교무실무원을 만났다.



교무실무원으로 일한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2012년 11월 1일부터 근무했어요. 벌써 만 6년이 되어가네요.

교무실무원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학교마다 교무실무원의 역할과 업무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규모나 상황, 업무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학생들의 ‘전학 관련 학적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학 가는 친구들의 다양한 서류, 전학 오는 친구들의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정리해서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학교의 큰 업무 중의 하나인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을 지원해 드려요.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이 하는데 그러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강사 선생님 일을 돕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각종 학교로 걸려오는 전화 민원을 맡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하시기 전 학교와 일하고 나신 후의 학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만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학교는 저에게 내 아이와 아이 친구들, 담임 선생님만 보이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모두 퇴근하시는 줄 알았어요. 마냥 신이 내려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준비 말고도 다양한 업무로 학교를 함께 경영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신의 직장과는 전혀 판판인 각종 고충에 시달리시는 교감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물론 빠른 퇴근도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깨달았어요.

또, 학교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교사뿐 아니라 교무실무원, 과학실무원, 행정직원, 급식종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계셔야 함께 한 학교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수업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개수업을 하시기 전에 수업을 지원해 드릴 때입니다. 수업준비에 필요한 소소한 것까지 챙기고 무사히 좋은 수업을 하셨을 때 함께 보람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요청하시면 제가 가끔 작은 것을 챙겨드릴 때가 있는데 좋은 수업에 함께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쁘고 그 수업을 다양한 학생들이 학습하고 즐기는 모습을 들을 때면 제가 다 뿌듯하고 기쁩니다. 열정있는 선생님들을 보고 수업을 지원해 드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즐거운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전·출입학생이 늘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귀찮은 것보다는 전입생이 전출생보다 많을 때, 학생 수가 늘어날 때, 마치 우리 학교가 우수학교라 증명이 된 것처럼 기쁩니다. 그리고 전입생이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고 교내에서 인사를 나누었을 때 서로 알아봐주며 응원할 때 내 업무에 다시 한 번 보람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은 저와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담당자 선생님이 계시지만 수업 중이시거나 늘 교무실에 있는 것은 저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수강생이 늘었다고 저에게 자랑하실 때면 함께 기뻐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 우리 학교에서 좋은 강사 선생님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강생 또한 늘어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무실이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저의 큰 달란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학교,
우리 마을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분들 또한 잊지 않아야 할 점이다.



DREAM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다면요?

좋은 학교,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을 위해 실무원들도 서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연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칭 '실무개선 선도실무원'으로 활동하고 싶네요.

한 아이가 성인으로 크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흔히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학생, 교사, 학부모'만을 언급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학교, 우리 마을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분들 또한 잊지 않아야 할 점이다.

캐리커처

봉사활동을 통한 나의 성장

글/강세영 인천예술고등학교 1학년
사진/이예슬



올해 인천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것이 참 좋았다. 서양화 선생님은 캐리커처 연습을 많이 하면 인물의 특징 파악을 빨리할 수 있게 되어서 인물화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좋아하는 인물화 그리는 실력도 기르고 나의 재능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니, 나는 캐리커처 동아리 활동을 당장 시작했다.

처음으로 캐리커처 봉사활동을 했던 어린날이다. 잔뜩 부푼 마음을 안고 행사장에 온 아이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 우리 캐리커처 부스에 들어왔다. 3살짜리 남자아이를 그렸는데 앞서 모든 체력을 방전하고 온 아이는 그림을 그리자마자 즐기 시작했다. 나는 조는 얼굴을 관찰하려고 고개를 숙여 밑으로 보기도 하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아이의 머리를 잡아주세요”라고 말하

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림을 완성하니, 아이의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림을 받은 꼬마도 언제 줄았냐는 듯이 생글생글 웃어주며 정말 기뻐해 줘서 고마웠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싫은 내색을 크게 하셨다. 담당 선생님께 가서 “다시 그려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정말 속상했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마음을 다독였다. 아이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줄 때 힘든 게 바로 이런 점이다.

의자에 앉아서 그리는 캐리커처지만, 대부분의 행사장이 야외여서 햇볕 아래에서 그림을 오래 그린다. 그리다보면, 너무 덥고 서서히 눈도 뿌옇게 되고 목도 어깨도 빠근해진다. 이렇게 힘들어질 때 “너 많이 했지? 이제 내가할게”라며 바꾸자는 친구들이 있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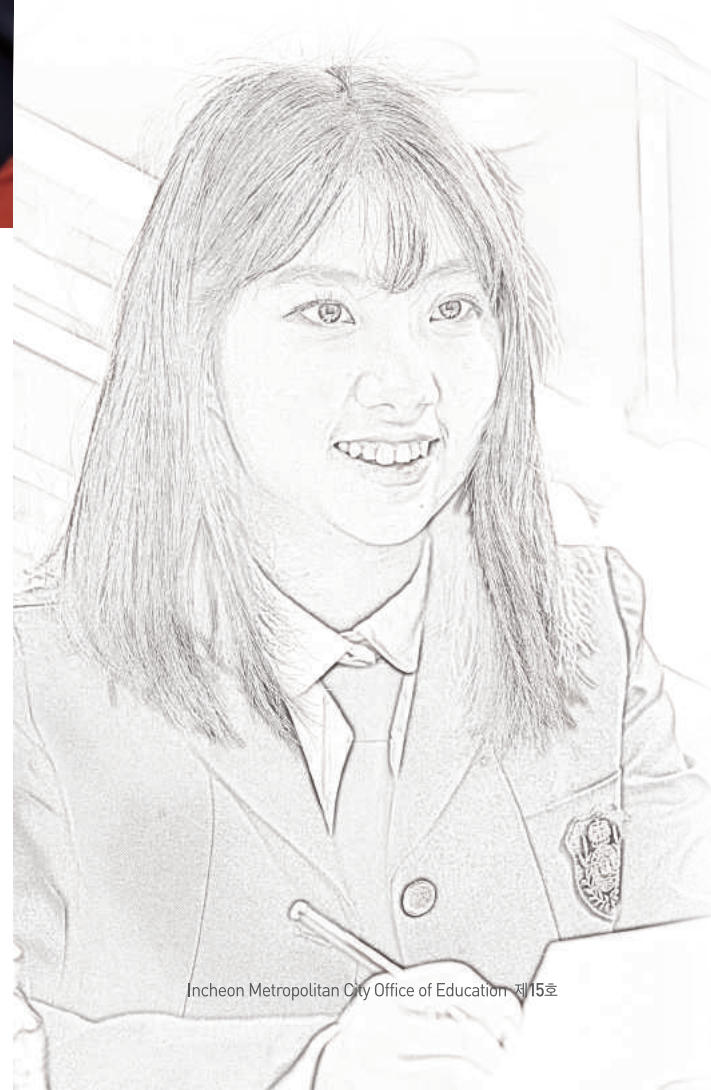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한 ‘어울림 축제’에서 장애인의 캐리커처를 그리게 되었다.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활동 보조인과 함께 다니고 있었고 내가 그린 분도 활동 보조인과 함께 행사에 오셨다. 그림을 다 그린 후 활동 보조인에게 전달하고 있던 나의 손과 종이를 받으러 마중 나와 있던 장애인의 손이 엇갈리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활동 보조인은 나의 손을 잡고 장애인에게 종이를 건네게끔 했다.

이후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평소 편견과 선입견 등을 경계하고 나의 선부른 언행에 남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장애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경솔한 행동을 한 나를 떠올리면 부끄럽고 창피하다.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온종일 캐리커처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지만, 우리 캐리커처 동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 생각하면 그만큼 뿌듯하다. 캐리커처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그린 캐리커처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동아리 친구들과 힘든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 돕고 챙겨주며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가짐도 배우게 되었고 우정도 더욱 깊어졌다.

내가 좋아하는 인물화 그리는 실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 가입한 캐리커처 동아리이지만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그림 실력과 함께 나의 내면도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제15호



인천 초등 교원 수 감축에 대한 Fact-Check

“인천 초등 교원 수가 줄었다?” 2018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학급담임의 주당 수업시수와 학교업무가 늘어 초등 교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원정원 배치와 인천 초등 교원 수 감축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정선 초등교육과 장학사



교원정원

배정

초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 배정은 학생 수 및 학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학교별 구체적인 배치기준과 정원 배치는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 초등교원

인원 감축에 대한 오해들

인천 초등 교원 수는 늘고 있는데 교과전담교사는 줄어들었다?

아닙니다.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우리 교육청 초등교사 정원은 2017년 7,641명, 2018년 7,612명으로 오히려 2018년에 초등교사 정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은 학생 수 및 학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시도별로 배정하는데, 인천의 경우 학생 수는 약간 늘어났지만 교사 정원 증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등교사 정원은 줄어든 반면에 송도지구, 청라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학급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정원 배치는 학급담임 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교과전담을 배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급 수 증가에 맞춰서 학급담임 교사를 늘려서 배치하였기 때문에 교과전담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들이 늘어서 초등교사 정원이 줄어들었다?

아닙니다.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육부의 초등교사의 정원 배정은 각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과 교사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초등교사 정원과 비교과 교사 정원을 따로 분리하여 배정하기 때문에 비교과 교사가 늘어서 초등교사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초등교원 수 전망

인천의 경우 송도, 청라지구 등에 신설학교 설립 및 학급증설로 인해 학급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부 초등 교원 정원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 교원 수는 당분간 현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교육부에 지속해서 초등 교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성과상여금 어디까지 아시나요?

“인천시교육청은 왜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하지 않나요?” 교사의 사기 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사기 진작은 커녕 선생님끼리 얼굴을 붉히게 만들어 학교문화를 해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이기도 한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 쉬운게 아니라서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교원 성과상여금을 없애지 못했다.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 김정모 _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과상여금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182호)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6호)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폐지하거나 교육부 단독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성과상여금 폐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책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폐해에 대해 알리고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교원의 봉급을 떼어 지급한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교원은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성과상여금은 기존의 보수체계에 하나의 수당이 추가된 것으로서 봉급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오해에서 이해까지’)

교원 성과상여금이 폐지되면 그동안 받던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사 최환영 _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후 새로운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원 업무수당으로의 전환이 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수당의 전체 인상을 기본 틀로 담임 등 각종 업무 수당 인상이나 신설, 농어촌 수당, 도서벽지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및 이후 대책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교육에 정답이 있을까?

이성원
글짓는 스웨덴 교사



우리 부부는 2년여의 스웨덴 생활을 마치고 지난봄 한국에 돌아왔다. 스웨덴에 있는 동안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국으로의 귀환은 나를 무척이나 설레게 했다. 그리운 가족,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껏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까지... 내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웠다. 그런 설렘은 코펜하겐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서도 계속됐다. 그리곤 13시간이 넘는 기나긴 비행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고대하던 귀국 후엔 다시금 익숙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스웨덴에서 귀국 준비를 하면서 ‘너무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했었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나는 학교로 다시 출근했고 6학년 담임을 맡으며 아이들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다. 맡은 일은 많았고 일상은 바빠지만 많은 것들이 즐겁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상이 익숙해 질수록 내 머릿속엔 스웨덴이 떠올랐다. 스웨덴에 있을 때,

한국 사회를 많이 떠올리면서 두 사회를 비교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많은 이들이 호감을 느끼는 북유럽 사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복지 국가라 불리는 스웨덴에서 생활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했다. 스웨덴 생활을 갖 시작했을 땐 생경한 도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차이, 각 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점 등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서 때로는 개개인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에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고 연대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다. 또한 우리보다 더 느긋하고 무언가에 쫓기지 않는 것 같은 그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입식 교육, 성적, 경쟁, 대학 서열 등의 단어로 대표되는 우리 교육은 긍정적인 면보다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우리 사회에서 늘 비판의 대상

이 된다.

스웨덴에서 지내는 동안 스웨덴 교육의 여러 모습 - 각각의 학생을 존중하고 개별 목표를 설정하는 교육, 강의 대신 토의와 토론으로 이뤄지는 수업, 교실과 삶에서 직접 배워 나가는 민주주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사, 학교의 수평적 문화 - 을 마주하면서 그들 교육의 장점이 도드라져 보이고 우리 교육은 단점이 많은 것 같아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시스템과 제도는 없는 법. 스웨덴의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들 역시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스웨덴 교육에도 우리와는 다른 문제점과 단점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몇몇 스웨덴 교육자들은 자신들과 결이 다른 한국 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교육이 가진 장점을 스웨덴 교육에 접목하고 싶어 했다. 결국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나 정치, 역사 등이 쌓이고 서로 화학적인 결합을 하며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나라의 교육 제도 역시 우열이라는 이름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 역사, 문화의 차이가 가져온 다름이었다. 그런 시각으로 한국 교육을 바라보자 우리 교육이 가진 장점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스웨덴 교육이 가진 좋은 생각과 가치, 지향점들을 우리 교육이 가진 강점과 잘 결합하면 아이들에게 한층 진보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가진 힘, 한국 교육의 장점들

우리 교육이 가진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스웨덴 교육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였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지난 10여년, 피사 순위가 크게 하락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학업 성취도가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꾸준히 높은 성취도를 유지하는 한국의 교육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스웨덴 교육자들이 여럿 있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높은 학업 성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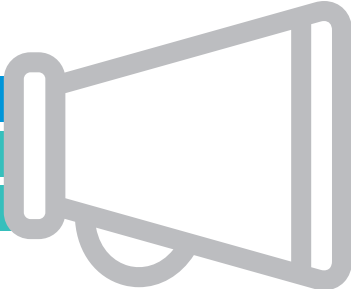
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교육을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교육의 두 번째 장점은 균등하게 제공되는 수준 높은 공교육이다. 강력한 중앙 정부는 각 학교에 교육 정책,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학교는 그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해 나간다. 이런 형태는 학교, 교사의 자율성 확대에 배치되지만 역설적이게도 균등한 공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자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든 비슷한 교과서와 학습 성취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질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다. 만약 학생이 사는 지역에 따라,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교육 수준의 편차가 크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을 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스웨덴 교사와 인터뷰를 하며 ‘많은 자율성의 이면에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례로 스웨덴 초등학교는 공통된 교과서 대신 각 학급의 교사가 자기 반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거나 만들어서 수업한다. 그래서 학생이 학기 중에 전학을 가면 학습 내용이 달라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학생의 학습 결손을 불러올 수 있고 균등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우리 교육이 가진 장점은 굉장히 많다.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고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유교의 영향으로 교사를 공경하는 문화, 그로 인한 질서 있는 교실 분위기도 들 수 있다. 늘 부족하게만 보였던 우리 교육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지내보니 그들도 교육 제도와 방식에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대로 그동안 깊이 생각해볼지 않았던 우리 교육의 힘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을 잘 키워내고 다른 나라 교육의 좋은 사례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변형시킨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교육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교육감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작은 소리도
귀담아들어 소통하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글/정영찬 사진/서주희



#1 인천교육정책에 반영되는 시민
제안 정책은 무엇?

9월부터 두 달간 113개의 시민 제안 중
100여개의 제안, 정책 반영

9월 17일 청소년정책 100인 토론회, 10월 4일 광장 토론회를 거쳐 4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113개의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100개의 제안이 계획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었다. 113개의 제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원안수용이 93건, 중장기 추진 7건이었으며 미반영 7건, 6건은 재검토과제로 분류됐다.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특수학교, 스쿨미투 등에 시민이 정책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학교 내 인권 개선 등 학교 생활 분야와 무상교복, 학생 자치 등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바라는 제안도 많이 제시되었다.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 내 생리대 무상 비치 의무화 또는 확대, 공립유치원 증설 등과 관련한 제안도 있었다.

인천교육정책에 반영된 청소년정책 100인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



- 교육청 단위 학생자치 연합회 구성 및 토론회 진행 등
- 학생들과 의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인권보호관' 설치 및 교육청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
- 학생교복자치기구 설립, 교복 교육청 무상 지원, 학생 수행평가 방법 개선
- 수학여행 자율화 및 경제적 부담 감소 5개 주제 16가지 공동 제안 제시
- 개별 의견으로 박람회, 대제전 평일 참가에 대한 입장, 부흥고등학교 사거리 신호등 설치 등 21가지 정책

세부 정책 반영을 살펴보면, 교육청 단위 학생자치 연합회 구성 및 토론회 진행과 관련된 제안과 관련해서 2019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중·고 학생자치네트워크 구성하여 상시로 운영할 것이다. 학생들과 의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초·중은 지원청 '교육장과의 대화', 고등학교는 '교육감과의 대화'를 연 1회 개최하고, 2019년까지 교육청에서 직접 중·고 259개교(예정)에 80만 원씩 학생회가 스스로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학생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생자치회실 구축 지원을 17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 전체 학교(521개교)에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복 관련해서도 무상교복 및 편한 교복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의견을 반영하여 교복구매 운영요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정책에 반영된 광장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 (79가지 정책)



구체적으로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혁신학교 진행을 통해 모델학교를 만들어 질적으로 한층 더 혁신적으로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미투와 관련해서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 구축, 성평등 전문가 채용으로 성차별적 문화 개선 방안 마련, 성평등 교육 및 연수를 활성화하고, 공립유치원을 기존 1학급 병설유치원부터 우선 증설, 병설유치원이 없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2학급 이상 신설하여 증설한다.

- 연구학교 등 공모사업 개선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원
- 학교인권조례 제정
-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관련 전반적 대책 수립
- 행복배움학교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수업연구대회 폐지(19년 일몰, 20년 폐지)
- 놀이교육 확대
-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스쿨미투 원스톱 대응센터 마련
- 공기청정기 설치
- 학교내 생리대 무상 비치 의무화 또는 확대
- 공립유치원 증설
-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간 재구성 등 72개 정책 제안이 2019년에 정책으로 반영되었고, 인천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 신설 등 7개 제안은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



#2

교복입은 시민,
인천 교육감이 되다



교육을 바꾸는 학생들의 외침

“학교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학부모나 선생님
의 반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전달할 기회라 기대가 됩니다.”

“학생이 만드는 학생의 정책이라 신기하고, 긴장되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학생의 제안이 실제 이루어지는 성취의 경험이 많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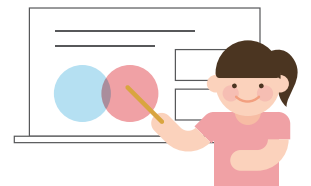
“토론회라 말 잘하는 친구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었고, 제가 느끼는 교복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청소년정책 100인 토론회’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기치로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토론 주제를 선정했다. 참여 학생들은 학교
내 교복 관련 개선 방안, 학생 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호할 방안,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 수학여행, 수행평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청소년의 생각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우리 교육청 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토
대가 될 것이며 토론회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소중한 경
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은 해당 부서에 전달되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였다.



#3 광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으로



광장토론회에서 토론을 통한 소통·협력으로 교육 정책 머리 맞대

광장 토론회는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서
착안을 얻어 기존의 보고 중심의 한방향 회의에서 벗어나 공유와 토론
중심의 양방향 소통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1부에서는 사전에 신청받은 168명의 시민, 학생, 교직원, 학
부모들이 인천 교육정책에 주제별로 토론을 하였다. 토론 주제는 사전
토론을 통해 교육시민들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13개 영역에서 모두
127개 의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진 2부는 만민공동회 형식의 행사로 시
민들이 제시한 제안을 3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결과는 2019년 교육 정책 및 사업예산 편성에 반영하였다.

광장 토론회에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학교가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시민들께서 발언해주신 그 수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놀며, 삶의 힘이 자라도
록 돕는 일,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을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4 전국교육청 최초로 파격적인 실험, 정책버스킹



내가 말하는 대로, 인천교육을 바꾸는 꿀팁

정책버스킹은 정책 제안에 시간적·물리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퇴근길에 쉽게 참여하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정책버스킹은 11월에는 실내로 옮겨 진행되고, 내년에는 연 6회 진행된다. 일반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 의견을 모으고, 듣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갈 예정이다. 도출된 아이디어나 의견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교육 정책 및 사업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
의견을 모으고,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버스킹 공연과 더 나은 인천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는 자리이다. 각 시민이 어떠한 정책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이다. 시민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리가 많아질수록 시민들과 소통과 협치가 복잡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문화와 접목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계속 발굴하여 장소와 참여를 늘려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더 나은 인천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는 자리



우리반

글/강윤민(서울청구초)
그림/정다운(인천석천초)

[허세대결]



[네 것도 내 것]



[자기소개]



[신체검사]



“선배님들 파이팅” 수능 향한 후배들의 목소리

수능 앞두고 옥련여고 수능 응원제 개최

유한나 학생기자(옥련여자고등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제15대 학생회에서 수능을 맞이하여 “제1회 수능응원제”를 개최했다. 각 반 및 학생회 부서들은 저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수능을 응원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학생회 부서 중 방송영상부가 직접 영상 수집 및 촬영을 도맡아 하여 수능 응원제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각 반마다 수수깡, 고무장갑 등 남다른 준비성과 아이디어로 수능 보는 선배들을 응원했다. 그 뿐 아니라 춤을 추거나, n행시를 하는 등 모든 학생들이 진심을 담아 선배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학생들은 이 응원제에 참여하면서 이렇게라도 고생하시는 선배님들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웃음 지었다. 3학년 학생들도 후배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수능의 고단함, 압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실제로 상영되는 영상을 보며 3학년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했고, 3학년 담임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 응원제를 직접 편집한 방송영상부 학생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 열심히 편



집하고 촬영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뿌듯한 마음이 가득하다. 원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응원제로 조금 더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고 원하실 때마다 자주 이 영상을 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옥련여고 1학년, 2학년의 진심을 담은 수능 향한 목소리가 옥련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과 3학년 학생의 마음속에 퍼지고 있다. 선배들의 웃음과 진심 어린 한마디도 옥련여자고등학교 어딘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할말이 많아서 하겠다

최원석 학생기자(인천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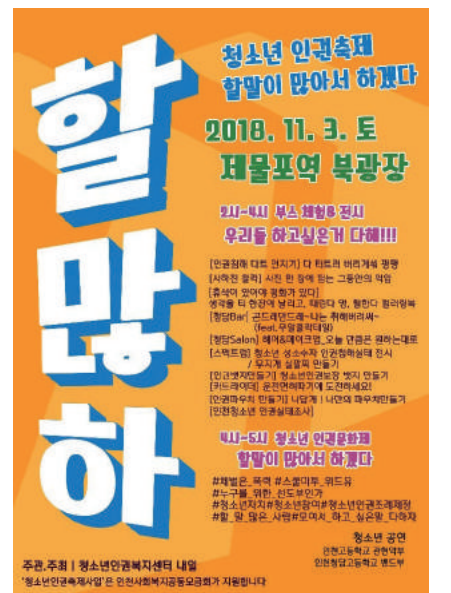


지난 11월 3일 제물포역 북광장에서 ‘2018 인천 청소년 인권 축제’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열렸다. 2시~4시에는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인천청담고등학교 등에서 부스 운영을 하였고 주변에는 프리마켓도 운영했다. 부스는 인권 침해 다트 던지기, 사진 찍기, 청담 Bar, 청담 Salon, 인권 달개-파우치 만들기,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등 총 10개 정도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인권 침해 다트 던지기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흔한 요소가 적힌 풍선에 다트를 던졌다. 사진 찍기 부스에서는 학생들의 지금 모습을 찍어준다. 가장 예쁜 학생일 때 나를 담아 준다는 의미다. 그리고 인권 달개 - 파우치 만들기 분과는 인권의 메시지를 담은 만들기를 했다.

또 청담 Bar와 청담 Salon 부스는 무알콜 칵테일을 나누어 주고 헤어 디자인을 해주며 인권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외에도 인천고 관현악부와 인천청담고 밴드부의 공연과 학생 발언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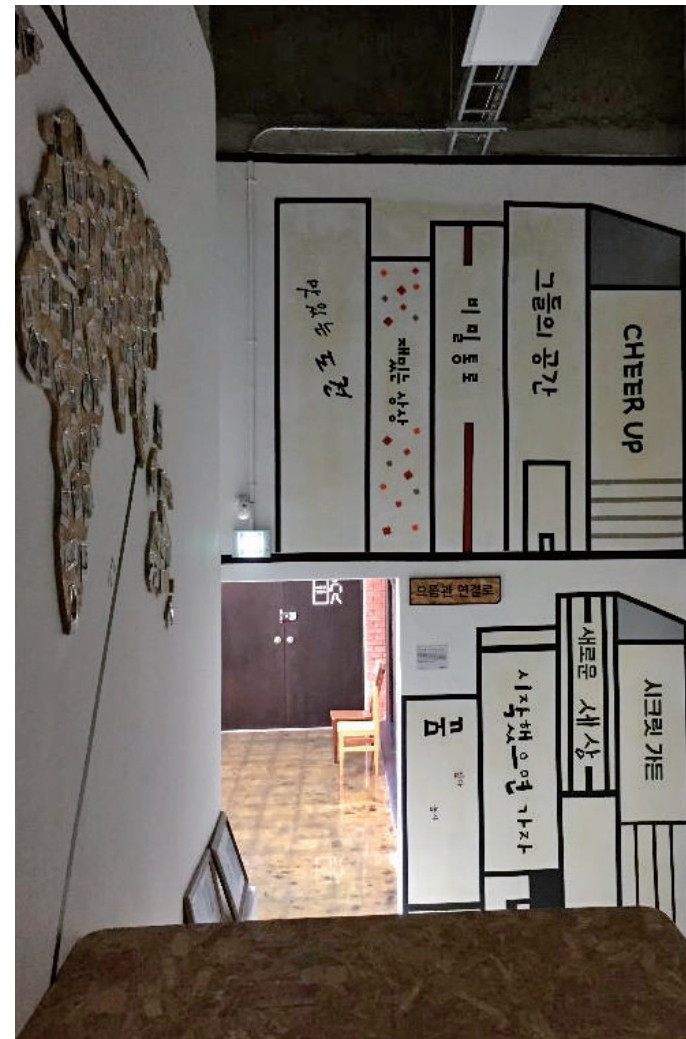
이날 발언에 참가한 인천고 편대호 학생은 발언을 준비하면서 “학생인권에 대해 알게 되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은 차별을 말하고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 알게 되는 기회를 작게나마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 교육을 만나다

지자체, 학교, 교육청, 마을이 함께 교육으로
성장하는 시흥혁신교육지구

정유나 학부모기자



인천시교육청 학부모기자단은 지난 10월 25일(목) 혁신교육지구로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현장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시흥시로 탐방취재를 다녀왔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흥시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6년부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으로 다양한 창의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탐방코스는 3곳으로 혁신교육지구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ABC행복학습타운, 마을과 학교가 연계되어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응곡중학교, 지역과 마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참이슬 마을학교였다.

ABC행복학습타운은 시흥시청과 교육청, 학부모가 협력하여 원활한 교육공동체로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3년 전 시에서 420억 원에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담당 주무관의 소개로 타운 내 다양한 공간을 돌아보았는데 공간마다 실용적이면서 개성 있는 디자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이곳은 학부모 교육과 모임, 청년창업지원, 아이들 체험학습장, 실내놀이터, 목공, 공연과 전시회 등이 진행되는 열린 공간으로 시흥시 주민이고 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위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아이들이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마을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 공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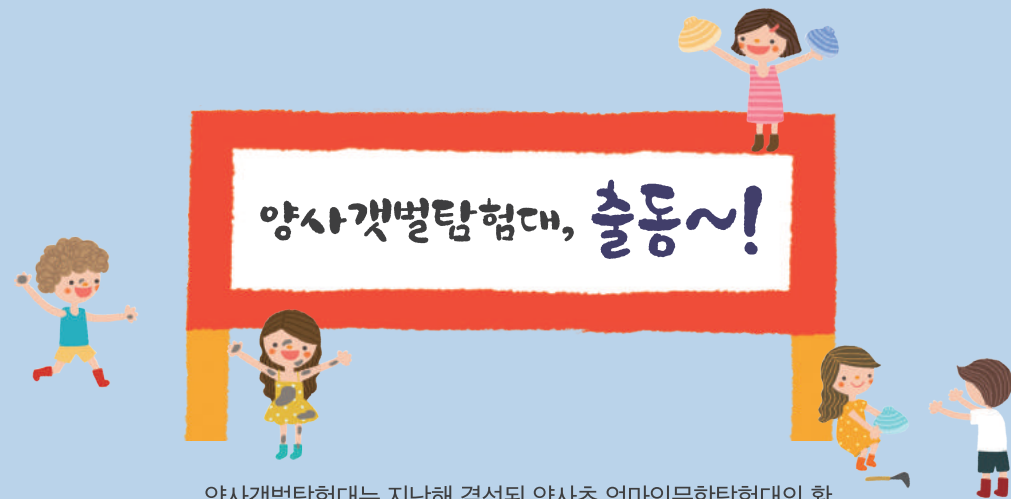
응곡중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경쟁보다는 협력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혁신학교를 시작했다. 교사와 학생, 마을이 하나로 연계되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축제 참여, 마을여행계획서, 마을여행지도, 마을신문 제작 등 교과목 수업을 마을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혁신교육과 시대에 맞추어 최근 아이들의 복장과 헤어, 메이크업도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교사, 교사를 믿고 즐겁게 배우는 학생, 다양하게 지원하는 학교, 신뢰하는 학부모, 그 안에 마을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참이슬 마을학교는 참이슬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공간을 바꾸고 사람을 소통하게 하고 주민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10년간 해오고 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되어 평생교육실천협의회 자문으로 진행된 마을학교사업은 2년에 한 번씩 마을축제를 열고 있으며, 북카페, 독서실, 벼룩시장, 공동육아, 주민교육,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이슬 아파트는 에너지마을로 선정되면서 태양열패널 설치, 에너지놀이터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하고 있다.

특히, 마을학교의 마을활동가 주부들이 운영하던 공정여행팀을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현재 공정여행가로서 시흥시의 문화와 명소를 안내하고 있다. 탐방을 통해 각기 다른 형태이지만 혁신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 자리에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이러한 시흥시의 모델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모습의 혁신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양사갯벌탐험대는 지난해 결성된 양사초 엄마인문학탐험대의 확장버전이다. 이울러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강화도 갯벌을 비롯한 해안 지역을 둘러보며,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을 알아보는 양사초등학교 최초이자 유일한 가족 생태 동아리다. 지난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재단에서 공모한 해양교육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갯벌체험활동 두 가지를 소개한다.

김혜영 학부모기자



장화리 갯벌

지방선거를 마치고 강화갯벌센터를 찾았다. 그동안 책과 박물관에서 본 갯벌 생물을 드디어 현장에서 만나는 날. 우선, 갯벌센터에서 30분간 이론 수업을 들었다. 갯벌은 바다의 넓은 벌판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며, 갯벌에는 펄갯벌, 모래갯벌, 자갈갯벌, 혼합갯벌 등이 있다. 갯벌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정화작용. 육지의 오염물질이 곧바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더러운 흙과 모래를 깨끗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다. 조개 한 마리가 하루에 뱉어내는 깨끗한 물의 양이 자그마치 약 50리터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태교육전문가 물새알의 여상경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화리 갯벌로 나가 칠게, 밤게, 털게, 길게, 민챙이, 갯지렁이, 고둥, 망둑어 등을 살펴보았다. 질퍽한 땅속에 손을 넣고 찾아보려는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역시 현장교육만 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주문도 1박 2일

강화도 하면 석모도와 교동도를 떠올리는 사람이 꽤 많다. 더구나 대교가 놓인 이후로 육로 이동이 가능하기에 이 두 섬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인근 섬이 남아 있다. 바로 불음도와 주문도다. 양사갯벌탐험대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주문도 1박 2일 갯벌체험을 다녀왔다. 이곳이 장화리 갯벌과 다른 특징을 꼽자면, 더욱 부드러운 펄갯벌인데다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조금 다르며, 같은 종류일지라도 그 양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드나드는 사람이 적다 보니 갯벌생물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랄까? 트랙터를 타고 십여 킬로미터는 나가야 동죽과 백합을 만날 수 있었다. 군데군데 물이 고인 웅덩이는 그야말로 갯벌 온천이라 불릴 만큼 뜨끈했다.



자연이 학교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EBS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 작가라고 했다. 그녀는 양사초등학교의 갯벌탐험대 소식을 듣고는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양사갯벌탐험대는 장화리 갯벌 야외촬영과 일산 스튜디오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EBS TV '행복한 교육세상' 프로그램에 『자연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소개되었다. 자연 속에서 배우며 성장해가는 우리 양사초등학교 아이들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QR코드로 보시길 바란다.



무상교복 사용 설명서

등교 첫날의 설렘부터 학창시절의 많은 추억을 함께할 교복
한 벌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교복값은 학부모님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2019학년도 신입생 자료를 둔 인천 학부모님 걱정 끝!, 고민 끝!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시청은 지난 9월 18일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상 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총 5만 3천여 명에게 교복구입비를 교육청과 시청, 군·구 청이 함께 부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과 다른 시도,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학·입학한 학생

대상학교

인천 관내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청담고등학교

지원내용

학생 1인당 266,000원 범위의 교복을 구매하여 지원
① 배정받은 학교에 가면
② 안내 받은 업체에서
③ 사이즈 측정 후
④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교복을 받으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찾아라! 작고 작은 먼지!
만나라! 건강한 공기!
느껴라! 상쾌함!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설치완료



353개원
1,736대 지원

공립 사립 유치원



40교
1,177학급

초등학교



2교
22학급

중학교



3교
29학급

고등학교

추진계획



2019년
신학기 전까지

855,495천원 예산으로
총 475교 6,337실에 설치합니다.

- 1)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중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급에 설치합니다.
(특수학교 9교 268학급, 초등학교 209교 5,812학급)
- 2) 중·고·각종학교 중 공기청정기 미설치 257교는 보건실에 설치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순차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 3) 모든 학교의 교실 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리합니다.